

□□□□□□□□ <2007 □□□□□□□□>

□□ □□, □□□□?

"10년 후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일까?" 2007년 4월 7일부터 2017년 4월 7일까지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보는 '타임캡슐'이 만들어졌다. 2007년 4월 7일, 타임캡슐을 만드는 모습.

타임캡슐
작가명 김창기
자유공원 일대 주민들이 추억의 소장을 담아 10년 후 개봉되는 타임캡슐을 제작했다. 공원의 역사적 특수성을 조명하여 그것이 타인의 역사가 아닌 우리 개인의 역사임을 되새기는 계기를 만들어 본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의미의



2007년 당시 홍예문 프로젝트 타임캡슐을 묻는 모습

2007년 타임캡슐을 묻는 모습, 2007년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모습. 2007년 4월 7일과 2017년 4월 7일 10년 후의 모습 '타임캡슐'이 만들어졌다. 타임캡슐을 만드는 모습,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모습. 타임캡슐을 만드는 모습,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모습. 타임캡슐을 만드는 모습,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모습.



2017년 타임캡슐 개봉식

"타임캡슐"이 10년 후 어떻게 될지, 어떤 모습일까? 타임캡슐을 만드는 모습,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모습. 타임캡슐을 만드는 모습,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모습. 타임캡슐을 만드는 모습, 타임캡슐을 개봉하는 모습.



이동철, 김성진 부부, 부부의 타임캡슐과 편지

이동철 씨는 10년 전 아내 김성진 씨와 함께 타임캡슐을 만들었다. 타임캡슐은 10년 후 개봉하는 특별한 선물이다. 이동철 씨는 아내 김성진 씨를 위해 타임캡슐 안에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10년 후 개봉하는 타임캡슐 안에 아내 김성진 씨의 편지”라고 적혀 있다.

이동철 씨는 아내 김성진 씨를 위해 타임캡슐 안에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10년 후 개봉하는 타임캡슐 안에 아내 김성진 씨의 편지”라고 적혀 있다. 이동철 씨는 아내 김성진 씨를 위해 타임캡슐 안에 편지를 썼다.

이동철 씨는 아내 김성진 씨를 위해 타임캡슐 안에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10년 후 개봉하는 타임캡슐 안에 아내 김성진 씨의 편지”라고 적혀 있다.

“10년 후 개봉하는 타임캡슐 안에 아내 김성진 씨의 편지”라고 적혀 있다. 이동철 씨는 아내 김성진 씨를 위해 타임캡슐 안에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10년 후 개봉하는 타임캡슐 안에 아내 김성진 씨의 편지”라고 적혀 있다.



다시 봉인된 타임캡슐

Q. 10년 후 이 타임캡슐을 개봉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A. 10년후엔 어떤 모습으로 이 타임캡슐이 모습을 드러내는지 모르지만, 10년 후 10년 후 타임캡슐이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우리는 <2007 타임캡슐>이 10년 후 어떤 모습으로 10년 후 모습 10년 후 모습 '10년 후 모습'이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타임캡슐이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타임캡슐이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타임캡슐이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2027년 4월 7일 타임캡슐이 모습을 드러내길 기대합니다.

0/ 00000003.0 0000

00/0000000, 000 00000003.0 0000